

제16차 전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 개최

국민연금·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분야별 전문가 참석 특별자치도법 금융산업 육성 특례 추진 등 정책 논의

전북도가 20일 오후 전북 금융산업 주요 추진정책 보고 및 자문을 위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(위원장), 금융분야 관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제16차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'를 개최했다.

금융산업발전위원회는 전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구성됐으며,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국민연금공단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, JB금융지주 등 금융기관과 대학,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.

심의 안건인 '전북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 변경안'은 지난달에 체결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민간투자를 통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의결됐다.

제4회 자니포럼 추진 결과 및 차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 또한,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법에 반영된 5개의 금융산업 육성 특례(금융기관 자금지원,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등)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.

/김재훈 기자



전북도가 20일 지역 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형 기구인 '전북물포럼'의 한해 추진성과를 분석하고, 아젠다 발굴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.

민·관이 함께하는 '전북 물포럼', 성과보고 자리 마련

국회 토론회 개최로, 섬진강권역 가뭄 등 현안 해결 기반 마련 수계기금 활용방안 논의로 용담호 수질종합대책 용역비 확보

전북도가 12월 20일 지역 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형 기구인 '전북물포럼'의 한해 추진성과를 분석하고, 아젠다 발굴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.

전북물포럼은 도내 물 현안에 대해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하고자 지난 2019년 구성되어 제1기(2020~2022년)를 거쳐 올해로 4년 차 운영(제2기, 2023~2025년) 중이다.

년 최고 성과로 평가했다. 기후변화로 인한 섬진강권역 가뭄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, 환경부, 한국수자원학회 등이 참여한 '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' 토론회는 대외적으로 비상공급대책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.

거버넌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민·관 협력 '용담호 수질관리협의회'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.

/김재훈 기자

전북도, '산타원정대' 행사 추진

저소득 아동 755명에게 크리스마스 맞이 선물 전달

전북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20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후원자 및 아동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2023년 초록우산 전북산타원정대' 행사를 개최했다.

자 관련 도지사 표창 등 6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. 후원자 대표인 이인호 전북후원회장은 "산타원정대 나눔 행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, 앞으로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/김재훈 기자

'도정에 변화·혁신의 바람'

전북도 도정혁신자문단, 민생혁신 등 3개 분야별 아젠다 논의

전북도 도정혁신자문단(단장 이광철)이 전북 도정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.

브랜드 개발', '문화 도시 추진'에 관한 논의를 통해 7개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중점 아젠다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.

/김재훈 기자

출판기념회



스피치, 리더십 교육과정 48년 지도자로 생활해온 김양욱 교수의 출판기념회를 제자들이 준비했으니 스피치 제자, 지인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행사명: 칠순기념 "행복한 스피치" 출판기념회
2. 일시: 2023년 12월 23일(토) 오후2시 30분 축하공연, 오후3시30분 기념식
3. 장소: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
4. 주최: (사)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본부
5. 주관: 각 스피치과정 원우회 출판기념회 총괄본부위원회
6. 참고
① 문의사항: 063-231-6669, 285-6676
② "행복한 스피치" 구입회차자는 보내드립니다. (가격: 16,000원)
③ 계좌번호: 전북은행(한국은행인협)502-13-0310743

“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”
구독·광고문의: 063-288-9700 www.jmaeil.com